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17
2025.10.13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전 세계 해운단체, IMO에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촉구
- 가나, 제6조 승인 프로젝트 90건 돌파, 아프리카 탄소시장 본격화
- Verra-인도네시아,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
- Gold Standard, 내년부터 모든 탄소크레딧 파리협정 기준 의무화
- 독일, 60억 유로 규모 산업 탈탄소화 프로그램 발표, CCS 첫 포함
- 글로벌 CCS 급성장, 자금조달 구조도 성숙기 진입
- 재생에너지, 사상 첫 석탄 추월, 전 세계 전력의 새로운 전환점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전 세계 해운단체, IMO에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촉구

덴마크, 영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글로벌 해운협회 등이 국제 해사기구 (IMO)에 ‘넷제로 프레임워크 (Net-Zero Framework, NZF)’를 공식적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지난 4월 IMO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2050년까지 해운 부문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 세계 공통의 구속력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

IMO 차원의 통일된 규제가 없을 경우, 국가별 규제로 해운업계의 혼란 및 중복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이 협회들은 또한 NZF를 통해 해운 배출에 대한 이중 부담 및 규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가 IMO의 프레임워크에 명확한 지지 의사를 보여줄 것을 요청

금번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시 글로벌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적 합의 및 투자 유인이 조성되어 대체연료, 지속가능한 기술 투자, 탈탄소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글로벌 신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가나, 제6조 승인 프로젝트 90건 돌파, 아프리카 탄소시장 본격화

가나 환경보호청 (EPA)은 Carbon Forward Expo 2025 회의 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인가를 위한 90개 이상의 탄소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이는 지난 5월 보고된 70개 프로젝트보다 증가한 수치로, 프로젝트 대부분은 폐기물 관리, 수처리, 청정 조리기 등의 분야로 구성

EPA는 프로젝트의 지역사회 이익, 상업성 및 확장 가능성, NDC 기여도, 기술 이전이 주요 승인 기준이라 밝힘.

탄소 시장은 재생 에너지 확산의 핵심 촉매로 작용하지만, 여전히 높은 전력요금·저장비용 등으로 경제성이 낮은 상황에서 탄소 크레딧이 상업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으로 평가

또한 최근 2026~2035년 기간의 NDC 제출 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제6조 프로젝트 참여를 열어두고 있으며, 선진국은 크레딧 구매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제6조 참여 확대는 교토체제 당시의 소극적 태도와 달리 NDC 달성 및 경제 성장을 연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



Verra - 인도네시아, 상호인정협정 (MRA) 체결

Verra와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

동 협정으로 Verra의 VCS 프로그램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국가 시스템 (SRN-PPI)에도 병행 등록할 수 있으며, 발급된 VCU*는 Verra 등록부에서 관리됨과 동시에 정부 시스템에도 정보가 반영

Verra와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M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VCS 프로젝트 개발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기술 지침서를 공동 개발해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

*VCU

: Verra에서 인증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탄소크레딧 (1VCU = CO₂ 1톤 감축량)



Gold Standard, 2026년부터 모든 탄소크레딧 파리협정 기준 의무화

Gold Standard가 2026년부터 발행되는 모든 크레딧을 파리협정 제6조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빈티지 의무조항 (Vintage Mandate)’을 도입

2025년 동안 파리협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 개발 요건을 마련하고, 마지막 분기에는 검증 기관을 위한 의무 교육, 공식 요건 및 지침서 발행, 등록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힘.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이후의 모든 프로젝트 및 크레딧은 파리협정 기준의 ‘추가성·기준선·누출·데이터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6월 이후에는 기존 방식의 신규 프로젝트 등록이 불가

동 조치는 자발적 시장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끌어올려 투명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탄소시장 구조 전반이 파리협정 기반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



독일, 60억 유로 규모 산업 탈탄소화 프로그램 발표, CCS 첫 포함

독일 정부가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 60억 유로 (약 10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출범

동 프로그램은 기후계약 (Climate Contracts)이라는 형태로,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1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탈탄소 설비 투자와 배출 감축 실적을 계약으로 보장하는 구조

철강,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처음으로 탄소 포집·저장 (CCS) 기술을 기후계약에 포함한 것이 특징

이는 기존 재생에너지 기반 생산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저감 기술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정부는 2026년부터 경매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CO₂ 감축 단가가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음. 이는 효율적 감축 비용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의도

금번 조치는 고비용·저생산성 환경 속에서 독일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청정기술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



글로벌 CCS 급성장, 자금조달 구조도 성숙기 진입

국제 비영리 싱크탱크 ‘Global CCS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탄소포집·저장 (CCS) 기술의 보급이 가속화됨.

2025년 운영 중인 CCS 시설 수는 전년대비 54% 증가했으며, 상업 프로젝트는 77개로 총 포집 용량은 6,400만 톤, 건설 중인 프로젝트까지 포함할 시 1억 톤 규모

2030년에는 CCS 포집 용량이 3.3억 톤 이상, 이후에는 5억 톤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용량의 대부분은 발전, 수소, 비료, 천연가스 처리 분야에서 발생할 예정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국가에서 CCS 관련 정책, 법률, 규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또한 CCS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비소구 금융 (non-recourse)* 을 확보하며 자금 조달 구조가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

다만, 여전히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기가톤 수준의 감축 목표에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CCS를 필수 기술로 규정

*비소구 금융 (non-recourse financing)

: 대출금을 상환할 책임이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으로만 한정되는 구조

: CCS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자체의 신용으로만 대출을 받을 만큼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



재생에너지, 사상 첫 석탄 추월, 전 세계 전력의 새로운 전환점

영국 기반 기후·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Ember는 2025년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다고 밝힘.

석탄 발전은 가스 발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전 세계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적

엠버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주로 중국과 인도에 의해 주도됨.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을 2% 감소시킴과 함께 태양광 발전은 43%, 풍력 발전은 16% 증가

인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31%, 풍력 발전이 29% 증가해, 석탄 및 가스 사용을 3.1% 줄이는 데 기여

반면 미국과 유럽은 전력 수요 증가 및 풍력·수력 발전량 감소로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가 증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석탄 산업 부활 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